

나를 위한 관계 맺기

신수진(사진심리학)

Suejin Shin, Ph. D.(psychology of photography)

세상을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이지만, 종국엔 혼자일 수밖에 없는 운명 또한 인간의 몫이다.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소소한 일상은 물론 인생의 큰 행로도 바꾸어 놓는다. 개개의 관계를 선택하는 것은 '나'이지만 그 이후에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훨씬 더 복잡한 역학관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관계는 때론 그 자체가 주어진 운명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다. 누구도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 그만큼 누구나 관계를 떠나 온전히 혼자가 되는 꿈을 꾸다. 그래서 관계는 늘 자유와 종속이라는 양립되기 어려운 가치의 대립이다.

변순철은 정지된 인물사진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짜패」는 다른 인종의 커플을 그들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촬영한 것인데, 한국인인 작가가 뉴욕에 거주하면서 경험한 사회 문화적 장벽이 이러한 소재에 관심을 가지게 하였다고 한다. 대형 카메라로 촬영하고 등신대 이상의 크기로 프린트한 작품은 현실감을 넘어선 새로운 공간감을 경험하게 하는데, 마치 낯선 곳에서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우연히 그들을 마주하게 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인종의 다름은 외형적으로 피부, 머리카락, 눈동자의 색과 같이 쉽게 눈에 띄는 차이로 나타난다. 이것은 사진 속 등장인물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와는 별개로 서로 다른 사람들(독립된 개체)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데 일조한다. 그들은 유난히 다르게 생긴 점이 많은 커플인 것이다.

커플은 친밀감에 기초한 관계이다.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어려운 사적 영역(*personal boundary*)을 나누어 가진다. 변순철의 사진 속에서 그들은 외형적인 다름에 저항하듯 물리적으로 완전히 밀착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피부색은 주어진 것이지만, 누구와 살을 맞대고 살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이다. 그들은 서로 가까이 있어서 유난히 더 다르게 보이지만, 그들의 눈빛은 신비로울만치 닮아있다. 서로를 바라보던 눈빛, 서로에게 배워서 익숙한 눈빛으로 그들은 카메라 너머의 세상을 응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 눈빛은 편견이나 선입견에 저항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뿐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름은 다름으로 남겨져 있다.

수많은 익명적 관계에 지친 현대인에게 애인이나 배우자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두지 않아도 되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진다. 그들은 부모형제와도 나눌 수 없는 특별함을 공유하는 사이이므로, 적어도 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서로에게 절대절명의 힘을 지닌다. 하지만 그 특별함은 전인류에게 보편적인 것이고 그렇게 흔한 만큼 불완전하기도 하다. 그들의 다름은 어쩌면 모든 사람이 어머니의 자궁을 빠져나오면서부터 감내해야 할 외로움의 상징이다. 이렇게 해서 변순철의 「짜패」는 인종이라는 거칠고 무거운 주제를 섬세하고 미묘한 개인의 문제로 귀착시킨다. 사진 속 인물들은 일상적이지만 때로 절박한 삶의 무수한 갈등과 고민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하거나 혹은 혼자될 수밖에 없는 평범한 이웃으로 우리 앞에 서있는 것이다.

Set up relationship for myself

Suejin Shin.Ph.D(psychology of photography)

Although a person can not make his/her living without being accompany with others. his or her particular life belong to himself or herself. The interaction with others tends to charge the daily trifles at least and the road of life at most. Probably I choose one certain relationship with others, but the network of relationship will produce a more complicated "mechanic" relationship than the original one itself. Thus, in someway, the relationship is considered to be a kind of fate. No one can separate himself of herself about that we keep away from the network of the relationship with other people. Hence, the relationship is generally regards as the opposite position of different values like a sword with two blades.

Byun, Soon Choel show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by the stable status of human. "Couples" is the works that he made from the people who are different races in their own places. As a photographer from Korea. he lived in New York, experienced the barrier of different societies and different cultures. So the works have us feel the sense of spaces exceeding the facts. The work also gives us the embarrassing impression that we meet an unfriendly stranger in the difference of races by observing the difference in the color skin, hair and eyes. No matter what kind of relationship which is shown in the photos. they are showing different groups. They are couples with different faces with each other.

Being couples is a kind of relationship based on the sense intimacy. which can not share with anyone else. In the photos of Byun, Soon Choel, we can find obviously that they are showing their intimacy, although they are different race with different looks. The color of skin is born. but it is one's own choice to which he or she is with. Because they are together, people can find the difference, but the eye contact is mysteriously similar to each other. The eye contact of sharing at each, learning from each other, gazing the world outside, which resist the stereotype and prejudice, which overcome the judge of value and become free. Since so, they are different.

Modern people are exhausted by the countless variable indefinable relationship. For modern people, the spouse of lover is the only one fortress left which they do not keep distance in physical and psychological way.

They share those things that they will ever not share with their parents, brothers and sisters. Thus during the period they keep this kind of relationship, the power of their relationship is definitely strong to all human being, the specially of this relationship is generally recognized. while, it is not completely common because of the some reason. The difference of the people might be the symbol of the endurance of loneliness after they com out from their mother's wombs.

Therefore, the work "Couples" by Byun Soon Choel make the rough, heavy theme - race into a slender. sensitive, private topic. The people in the photos endure the conflicts and depressing things in their daily life, while they also can be the neighbors around us by themselves or with some one else.